

烏臺詩案에 연루된 文章에 대한 고찰

鄭世珍*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오대시안에 연루된 시와 문장의 표현의 일치성 - 君子와 小人, 新과 舊의 대립 구조 |
| II.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과 蘇軾의 진술문 분석 | IV. 나가며 |
| 1. 소식의 진술에 보이는 특징 | |
| 2. 각 문장의 풍자 내용 | |

I. 들어가며

蘇軾(1036~1011)은 北宋의 문인으로서 각종 문학 장르에서 뛰어난 성취를 거두었고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豪放瀟灑한 풍격으로 후세 사람들의 흠모를 받은 인물이다. 인생과 문학 모두에서 거둔 그의 성취는 烏臺詩案이라는 문자옥 이후 유배로 점철된 삶의 굴곡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烏臺詩案은 승승장구하던 소식 인생의 첫 번째 난관이었고 ‘東坡’라는 상징적인 인간형을 완성하는 데에 시초가 된 사건이었다.

王安石(1021~1086)의 급진적 개혁 방침에 반대하던 소식은 자처해서 杭州, 密州, 徐州 등지의 지방관을 지내고 있었다. 북송대에는 즉 3년간의 근무에 대한 인사고과를 거쳐 그 다음 관직을 결정하는 제도, 즉 磨勘 제도가 있었는데 소식은 메뚜기 퇴치, 가뭄과 홍수 처리 등의 업적이 인정되

* 서울대학교 中語中文學科 강사

어 元豐 2년(1079)에 비교적 살기 좋은 고장인 湖州의 知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소식은 부임 직후 <호주에 부임하게 된 것을 황상께 감사드리는 표(湖州謝上表)>를 神宗에게 바치며 “어리석어 시의에 적합하지 않아 신진을 따라가기 어려움을 알아차리시고, 늙어서 사업을 벌일 줄은 모르지만 어찌면 군소 백성을 다스릴 줄은 알 것임을 통찰하시는 황제폐하를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¹⁾라고 했다. 이 문장에서 ‘일을 벌이는 신진’은 신법파를, ‘어리석어서 신진을 따라가지 못하는 늙은이’는 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신법파 관료들과 御史臺는 즉각 탄핵 상소를 올리고 소식의 죄를 조사하여 결국 같은 해 7월 28일 호주 관청에서 체포해 8월 18일에 어사대옥에 가두었다. 이때의 죄목이 ‘망령되어 “시”로써 조정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사대의 별칭인 ‘烏臺’와 시가 문제된 필화 사건이라는 뜻의 ‘詩案’을 합해 ‘오대시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오대시안은 50여²⁾ 수의 시가 문제된 文字獄의 시작이라는 점과 소식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 사건에 관련된 기록이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한·중·일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안’이라는 이름처럼 시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연구 또한 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³⁾ 그러나 오대시안에는 賦, 記, 詩序, 表, 書信, 贊과 같은 文도 18편 연루되었다. 따라서 그 문장에 대한 고찰이 이루

-
- 1) “知其愚不識時，難以追陪新進。察其老不生事，或能牧養小民。” 번역은 류종목의 《팔방미인 소동파》(신서원, 2005, 127-129쪽)를 참고.
 - 2) 오대시안에 연루된 시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대시안 관련 판본마다 시편의 출입이 있고, 하나의 제목으로 지어진 연작시 중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 3) 오대시안에 대해서는 판본 문제, 사건의 전말, 사건 처리의 법률적 타당성, 오대시안에 연루된 시 분석, 당시 정치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고 그 연구 성과도 적지 않다. 다만 기존 연구가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 전반에 대한 것은 참고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 대한 소개와 정리는 정세진의 《烏臺詩案의 사회문화적 함의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0쪽)의 정리를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도록 한다.

어저야만 오대시안에 대한 온전한 파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과 소식의 진술문을 살펴보고 연루된 시와의 비교를 통해 오대시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과 蘇軾의 진술문 분석

1. 소식의 진술에 보이는 특징

《東坡烏臺詩案》⁴⁾에 따르면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은 <湖州謝上表>, <靈壁張氏園亭記>, <後杞菊賦>, <超然臺記>, <寶繪堂記>, <答黃魯直書>, <祭文與可文>, <王元之畫像贊并叙>, <日喻>, <錢君倚哀詞>, <大悲閣記>, <鳧繹先生詩集叙>, <曾鞏에게 부친 서간문>⁵⁾, <寶墨堂記>, <三槐堂銘并叙>, <王仲儀眞贊并叙>, <雩泉記>, <滕縣公堂記> 등 18편이다.

오대시안 당시 소식의 옥중 진술문인 《東坡烏臺詩案》의 供狀은 소식의 시문 중 어느 구절이 집중적으로 조사됐는지, 소식에 대한 심문이 얼마나 상세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소식의 시와 문장에 대한 진술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 시문의 구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부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湖州謝上表>에 대한 진술 중 일부를 살펴보자.

- 4) 현존하는 오대시안 관련 관본으로는 朋九萬이 撰하고 李調元이 編한 《東坡烏臺詩案》, 胡仔의 《苕溪漁隱叢話》 중 일부분, 張鑑의 《眉山詩案廣證》, 蔡正孫의 《詩林廣記》 중 일부분, 周紫芝의 《詩讞》이 있는데 이 중 소식의 진술이 잘 기록되어 있으면서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에 대한 소식의 진술이 남아 있는 것은 《東坡烏臺詩案》뿐이다. 나머지는 오로지 사건에 연루된 시와 그에 대한 소식의 시를 발췌해 실고 있다.
- 5) 이 서간문은 “부역이 새털같이 많이 생겨나고 염법이 지나치게 급속히 시행되어 백성들이 그 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賦役毛起, 鹽法峻急, 民不堪命)”라는 말이 《東坡烏臺詩案》 중 소식의 진술문 속에 인용되어 있을 뿐 기타 문집에는 전혀 실려 있지 않고 그 정확한 제목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정에서 근래에 등용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연소한 이들이며 소식과 의론이 맞지 않는 것을 보았기에 ‘우매하여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신진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하여서 조정에 등용된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영합함을 풍자하였습니다. 또한 “늙어서 사업을 벌일 줄은 모르지만 어찌면 군소 백성을 다스릴 줄은 알 것임을 통찰하셨습니다.”라고 말하여서 조정에서 일을 만들어 내어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 농사지를 시간도 빼앗는다고 풍자하였습니다.⁶⁾

그러나 진술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문에 대한 소식의 진술은 시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이루어졌다. 18편의 문장 중 대략의 대의만을 설명한 것이 4편, 일부 구절을 인용해 간략히 설명한 것이 13편, 제목만 언급한 것이 1편이다. 시에 대한 진술문에서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구를 직접 인용하거나 장편의 시 전문을 인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다.⁷⁾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옥중 심문을 받았지만 소식이 시문의 풍자 혐의를 무조건 인정했던 것은 아니다. 安徽省 靈璧의 장씨 집안을 위해 지어준 <靈璧張氏園亭記> 중에서 어사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문제 삼았다.

옛 군자들은 구태여 벼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구태여 벼슬하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반드시 벼슬하려면 그 자신을 잊었고 반드시 벼슬하지 않으려 할 때는 그 임금을 잊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허기질 때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이었던 것과 같다. 그런데 선비 중에 그 의리를 지키고 그 절도에 나아갈 수 있는 이가 드물다. 은거한 자는 그 머물던 옛 것에 안주하므로 출사하기 어렵고 출사한 자는 이익을 탐내어 돌아가기를 잊어버린다.

6) “又見朝廷近日進用之人多是少年，及與軾議論不合，故言愚不適時，難以追陪新進，以譏諷朝廷進用之人多是循時迎合，又云察其老不生事，惑能牧養小民，以譏諷朝廷多是生事騷擾，以奪農時。”(번역은 정세진의 《烏臺詩案의 사회문화적 함의 연구》 앞의 논문, 2012, 253-254쪽)를 참고·수정)

7) 이러한 비교는 《東坡烏臺詩案》의 진술문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의 전문 번역은 정세진의 《烏臺詩案의 사회문화적 함의 연구》 부록에 실려 있다.

이에 어버이를 등지고 속세와 연을 끊는다고 비방을 받고 봉록을 탐내고 구차하게 안녕을 구한다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⁸⁾

國子博士 李宜之는 이 구절을 문제 삼아 소식을 단죄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⁹⁾를 올렸지만 소식의 진술은 단호했다. “비방이 들어 있지 않다.(無譏諷)”라는 말로 충분했던 것이다.

풍자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인물과의 교유관계를 설명하는 증거 자료로서 문장을 진술한 경우도 있다. 소식의 <보회당기(寶繪堂記)>¹⁰⁾는 신법을 비판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글을 주고받은 대상이 駙馬都尉 王詵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소식은 이 글의 풍자 여부를 진술할 필요가 없었다. 戚里的 사적 교유가 엄격히 금지된 이 시기, 소식이 왕선과 시문을 주고받은 사실, 왕선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그림과 술 등을 선물로 받은 정황,¹¹⁾ 소식이 체포될 것이라는 기밀을 누설한 왕선의 죄¹²⁾는

- 8) “古之君子, 不必仕, 不必不仕. 必仕則忘其身, 必不仕則忘其君. 譬之飲食, 適於饑, 飽而已. 然士罕能蹈其義, 赴其節. 處者安於故而難出, 出者狃於利而忘返. 於是違親絕俗之譏, 懷祿苟安之弊.”
- 9) <國子博士李宜之狀>을 말하는데 《續資治通鑑長編》에는 보이지 않고 《동과오대시안》에만 실려 있다.
- 10) “군자는 사물에 뜻을 기탁할 수는 있으나 사물에 뜻을 머무르게 해서 안 된다. 사물에 뜻을 기탁하게 되면, 비록 작디작은 사물이라도 즐거움으로 삼기에 족하게 되고 비록 큰 사물이라도 병으로 삼기에 부족해진다. …… 부마도위 왕진경은 비록 황실의 친척이나 그 옷차림이며 몸가짐, 시서를 공부하는 것이 늘 寒士와도 같았다. 평소에 교양진미도 마다하고 성색을 멀리하면서 서화에 매진하다 사저의 동쪽에 보회당을 지어 그 소장품을 보관하려는데 나에게 기문을 지어 달라 했다. 그가 불행히도 내 어린 시절 물건을 애호하던 그 짝이 날까봐 이로써 그에게 고하여 그 즐거움을 온전히 하되 그 병폐는 멀리하길 바라노라.(君子可以寓意於物, 而不可以留意於物. 寓意於物, 雖微物足以爲樂, 雖尤物不足以爲病, …… 駙馬都尉王君晉卿雖在戚里, 而其被服禮義, 學問詩書, 常與寒士角. 平居攘去膏粱, 屏遠聲色而從事於書畫, 作寶繪堂於私第之東, 以蓄其所有, 而求文以爲記. 恐其不幸而類吾少時之所好, 故以是告之庶幾全其樂而遠其病也)”
- 11) 《동과오대시안》 중 <왕선과 주고받은 시부(與王詵往來詩賦)>에 소식과 왕선이 주고받은 시문, 물품, 돈, 승려들의 道號 등이 조목조목 진술되어 있다.

“강주단련사 부마도위 왕선이 가진 한 개의 관과 한 개의 직¹³⁾을 빼앗는 (絳州團練使·駙馬都尉王誥, 追兩官勒停)”¹⁴⁾ 중한 처벌의 충분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은 시와 마찬가지로 작문 시기의 폭이 넓다. 비록 그 수가 18편에 불과하지만 지어진 시기는 항주, 밀주, 서주는 물론 호주에 와서 머물렀던 때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어사대에서 소식의 시와 문장을 입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쓴 결과라 하겠다.

끝으로 조정을 풍자한 소재가 이처럼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식의 시에는 均輸法, 과거제도 개혁, 募役法, 市易法, 方田法, 鹽法, 공사전 삭감, 手實法 등 신법의 거의 모든 조목이 소재나 제재로 선택됐지만 문장은 몇 가지 소재로 국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의 내용을 크게 공사전 삭감에 대한 풍자, 과거제도 개혁과 인재 등용에 대한 불만, 신법과 신진관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각 문장의 풍자 내용

1) 公使錢 삭감에 대한 풍자

관공서에서 연회를 열거나 관공서를 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公使錢은 신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큰 폭으로 삭감되어 관공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관리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후기국부>와 <초연대기>에 대한 소식의 진술을 살펴보자.

12) 孔平仲, 《孔氏談苑》, 《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 4쪽.

13) 官과 職 : 송의 관직은 품계 서열인 官, 명예직인 職, 실제 업무를 말하는 差遣으로 구성되었다. 왕선이 관과 직을 모두 빼앗긴 것은 품계와 명예직을 모두 빼앗기는 중한 처벌이었다.

14)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中華書局, 2004, 7333쪽.

그해와 희령 9년에 <박박주>와 <수조가두> 한 수 외에도 <기국부>¹⁵⁾를 지었는데, 부당하게도 “밀주의 지주로 옮겨올 때 배불리 한번 먹어보려 했건만 주방이 썰렁하여 아무것도 없으며 그 근심을 견딜 수 없어”라고 하여, 조정에서 신법을 시행하면서 공사전을 너무 심하게 삭감하자 주방에서 술 빚는 일이며 주방의 일들이 박하여 일마다 모두 황폐하고 갖춰진 것이 없다고 풍자하였습니다. 소식은 또한 <초연대기>를 지어 “처음 왔을 때 해마다 흉년이 들어 도적이 들판을 메우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으며.”라 했는데 이 말 뜻은 바로 해마다 누리와 도적, 송사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조정의 허다한 정사의 착오와 부당한 신법의 소치라 풍자하였습니다. 또 “주방은 설렁하니 아무 것도 없어서 날마다 구기자와 국화를 먹었으니.”라고 하여 조정이 신법을 시행하면서 공사전을 너무 심하게 삭감하였다고 풍자하였습니다.¹⁶⁾

<초연대기>와 <후기국부>가 신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사전 삭감으로 궁핍해진 관공서의 재정 현황을 미묘하게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徐州知州로 있을 당시에 지은 <등현의 공당기(滕縣公堂記)>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집은) 지금 손봐지지 않으면 훗날에 경비가 배로 들게 된다. 그러나 근래 이르러 주거는 검소하고 남루한 것에 힘쓰니 토목공사와 건축 공사에 공을 들이는 것을 피하게 되어 집은 옆으로 기울고 나무는 썩고 벽은 무너지나 도리어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느라 서까래 하나도 감히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무슨 도리인가.¹⁷⁾

15) <後杞菊賦并引>을 말한다.

16) “當年并熙寧九年內, 作<薄薄酒>又<水調歌頭>一首, 復有<杞菊賦一首并引>. 不合云 ‘及移守膠西, 意其一飽, 而始至之日, 齋館索然不堪其憂’, 以非諷朝廷, 新法減削公使錢太甚, 齋醞廚薄, 事皆索然無備也. 軾又作<超然臺記>云, ‘始至之日, 歲比不登, 盜賊滿野, 獄訟充斥.’, 意言連年蝗蟲盜賊獄訟之多, 非諷朝廷, 政事闕失, 并新法不便所致. 及云 ‘齋廚索然, 日食杞菊.’, 以非諷朝廷, 新法減削公使錢太甚.” 정세진, 앞의 논문, 216쪽, 220쪽.

17) “今日不治, 後日之費必倍. 而比年以來, 所在務爲儉陋, 尤諱土木營造之功, 歛仄腐壞, 轉以相付, 不敢擅易一椽, 此何義也.”

이 문장에서 소식은 당시 조정이 검소한 것만을 숭상하느라 公堂 수리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공사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소식은 “그 기문의 내용이 많아 다 신지는 못하나, 그 기문은 대체로 조정에서 신법을 시행하면서 공사전을 삭감하고 당직 공인들의 인원을 줄였으며, 관사를 고치는 것도 허락지 않은 까닭에 소재한 관사들이 모두 부서지고 낡게 되었음을 풍자한 내용입니다.(其記多不具載, 此記大率譏諷朝廷, 新法已來, 減削公使錢, 裁損當直公人, 不許修造屋宇, 故所在官舍, 例皆壞陋也)”라며 위에서 말한 ‘검소한 풍조’가 사실 공사전 삭감에 의해 억지로 시행된 것이라 진술하기도 했던 것이다.

소식이 심문 때문에 억지로 공사전을 풍자한 것이라 진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사전 삭감이 당시 관료 사회에서 큰 불만을 자아냈고 이 때문에 어사대는 관공서의 궁핍한 재정 상황을 언급한 특정 구절이 나오면 공사전과 연관 짓고자 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 과거제도 개혁과 인재 등용에 대한 불만

소식은 신법과의 과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왕안석은 1070년 3월, 정치 실무를 담당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으로서 詩賦 중심의 과거제도를 바꾸고 자신이 지은 《三經新義》를 모범으로 삼아 經義와 策論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시 문인 사대부들은 이 제도에 매우 반발했다. 무엇보다 신법파가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소식은 <해예의 비유(日喻)>, <대비각기(大悲閣記)>, <부역선생 시집서(臯繹先生詩集序)>로 과거 제도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일유>의 일부분과 소식의 진술을 차례로 살펴보자.

그러면 도는 끝내 탐구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도는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탐구할 수는 없다”고 말하겠다. 무엇을 ‘이르게 한다’고 하는가? …… 억지로 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옛날에는 시부의 성품으로써 관리를 선발했기 때문에 선비들이 이것저것 두루 배웠지 도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학으로써 관리를 선발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도를 탐구할 줄만 알고 배우기에 힘 쓰지 않는다. 발해의 오언를 굳은 배움에 뜻을 둔 사람으로 바야흐로 예부시에 응시하려 하므로 <해에의 비유>를 지어서 그에게 충고한다.¹⁸⁾

원풍 원년(1078) 소식이 서주지주로 있을 때, 10월 13일에 본주에서 감주정자 벼슬을 하는 오관이 진사시에 응시해 합격하여 성시를 보러 가게 되자, 소식이 문장 한 편을 짓고 <해에 비유하는 글>이라 이름 하여, 근래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들이 그저 등용되는 것에만 힘쓰지 학문을 쌓는 데에 힘쓰지 않는 까닭에 모두가 공허한 말들만 일삼아 얻을 바가 없다고 풍자하고 이로써 조정에서 과거제도를 바꾸도록 한 신법이 부당하다고 풍자했습니다.¹⁹⁾

소식은 <일유>에서 새로 시행된 과거 제도에 편승해 성급한 성과를 바라는 젊은이들이 배움의 자세를 잃어간다고 개탄했다. 이것은 그의 옥중 진술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식의 <대비각기>를 살펴보자.

공자님은 '나는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도 않고 밤늦도록 잠자지 않고서 생각만 해본 적이 있으나 무익했다. 배움만 못했다'라 하셨다. 이로부터 보건대 배우는 것을 폐하고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은 공자님이 금한 바이자 지금 사람들이 숭상하는 바이다.²⁰⁾

18) “然則道卒不可求歟? 蘇子曰, ‘道可致而不可求.’ 何謂致? 莫之求而自至, 斯以為致也歟! 昔者以聲律取士, 士雜學而不志於道. 今者以經術取士, 士知求道而不務學. 渤海吳君彥律, 有志於學者也, 方求舉於禮部, 作<日喻>以告之.” 류중목, 앞의 책, 119-121쪽.

19) “元豐元年, 軾知徐州十月十三日, 在本州監酒正字吳瑄鎖廳得解, 赴省試, 軾作文一篇, 名為日喻, 以譏諷近日科場之士, 但務求進, 不務積學, 故皆空言, 而無所得, 以譏諷朝廷, 更改科場, 新法不便也.”

20) “孔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學也.’ 由是觀之, 廢學而徒思者, 孔子之所禁, 而今世之所尚也.”

소식은 옥중에서 이 기문은 “지금 과거에서는 대의로써 사람을 취하니 학자들이 그저 공허한 말과 고담준론에 힘쓰고 공부에는 힘쓰지 아니한다는 말로써 조정에서 과거법을 바꾼 것이 부당함을 풍자(今來科場以大意取人, 故學者只務空言高論而無實學, 以譏諷朝廷, 改更科場法度不便也)”²¹⁾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부역선생시집서>와 소식의 옥중 진술도 함께 살펴보자.

예전에 선군이 경사에 가실 때 경과 사대부들과 교류하시며 돌아오셔 나에게 ‘지금 이 이후로는 문장을 날로 공교해지고 도가 장차 흠어지리라. 선비가 먼 것을 사모하고 가까운 것을 홀시하며 화려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실재를 천히 여기니 내 이미 그 조짐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노 땅 부역선생의 시문 십 여 편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을 이으셨다. ‘나는 알 것 같다. 이 뒤로 수십 년이 흐르면 천하에 이런 시문을 다시 볼 수 없으리라는 걸.’ 선생의 시문은 모두 목적이 있어 지은 것이며 정련되고 날카롭고 확실하고 신랄하여 말 속에는 반드시 당시의 과오를 지적하였는데 명확하기로는 마치 오곡으로 필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과 같고 단 호하기로는 약물로 필히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과도 같다. 그 산수유기 중에 고아하다고 여기는 것과 기방사곡 중에 아름답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이십 여 년이 흘러 선군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말만 남았다.²²⁾

소식이 밀주지주로 있던 날, 안복이 소식에게 서신을 보내어 함자가 태초, 자호가 부역선생인 선친을 위해 문집의 서문을 써달라고 하여 소식은 마침내 조정에서 법도를 바꾸어 학자들로 하여금 공론만 일삼게 함은 부당

21) <승려 거처에게 지어준 ‘대비각기’에 대한 진술문(與僧居則作大悲閣記)>, 정세진, 앞의 논문, 249쪽.

22) “昔吾先君適京師, 與卿士大夫遊, 歸以語軾曰, ‘自今以往, 文章其日工, 而道將散矣. 士慕遠而忽近, 貴華而賤實, 吾已見其兆矣.’ 以魯人晁繹先生之詩文十餘篇示軾曰, ‘小子識之. 後數十年, 天下無復爲斯文者也.’ 先生之詩文, 皆有爲而作, 精悍確苦, 言必中當世之過, 鑿鑿乎如五穀必可以療飢, 斷斷乎如藥石必可以伐病. 其遊談以爲高, 枝詞以爲觀美者, 先生無一言焉. 其後二十餘年, 先君既沒, 而其言存.”

하다고 풍자하는 글을 썼습니다.²³⁾

요컨대 이 세 편의 문장과 소식의 진술문은 과거제도 개혁이라는 정책에 대한 소식의 우려와 비판이 학풍의 변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려 준다. 소식이 과거 제도 개혁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사실 과거 제도 개혁이 곧 인재 등용의 문제와 직결되어 조정에 소식과 뜻을 같이 하는 朋黨 사람들이 등용되지 못함을 의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예로서 외사촌 文同을 위해 쓴 제문인 <祭文與可文>에 대한 소식의 진술문을 살펴보자.

원풍 원년 2월 30일, 소식은 문동 학사의 제문 한 수를 지어 황정견에게 부쳐 보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풍자의 의미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말해보면 “도가 행해지기 어렵게 되자 나는 벗이 없어져 슬프다. 어찌 벗이 없으랴만 떠나버리고 나에게 고해주는 이가 없다.”라 했는데, 이 말은 소식이 신법이 부당하다고 말했으나 조정에서 이 말이 채택되지 못하였나니, 이처럼 도가 행해지지 않자 소식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벗들이 모두 버리고 떠났고 말을 터놓을 상대도 없어졌으니 이렇게 말하여서 지금 등용된 사람들 모두 소식과 오래도록 알아온 자들이나 모두 진퇴와 이해득실을 따져 모두 그 마음을 바꾸어 오랜 벗으로서의 의리도 갖고 있지 않음을 풍자하였습니다.(元豐元年, 二月三十日, 軾作文同學士祭文一首, 寄黃庭堅, 看此文, 除無譏諷外云, “道之難行, 哀哉無徒, 豈無友朋, 逝莫告予.” 意言軾屬會言新法不便, 不蒙朝廷施行, 是道不行, 軾孤立無徒, 故人皆舍之而去, 無有相告語者, 以譏諷當今進用之人, 與軾故舊者, 皆以進退得喪易其心, 不存故舊之義.)²⁴⁾

문동을 위한 제문의 내용은, 뜻이 맞지 않자 벗들도 떠나는 상황에서

23) <부역선생의 문집에 써준 서문에 관한 진술(與臯繹先生作文集序)>: “軾知密州日, 顏復寄書與軾云, ‘爲先父諱太初自號臯繹先生求作文集引序’, 軾遂譏諷朝廷, 更改法度, 使學者皆空言不便也.” 정세진, 앞의 논문, 250쪽.

24) 정세진, 앞의 논문, 233-235쪽.

그나마 의지했던 문동이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신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식의 진술을 보면 현재 등용된 사람들이 소식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노선을 바꾼 인물들임을 개탄한 것이라 풀이된다. 같은 맥락의 <전군의를 위한 애사(錢君倚哀詞)>와 소식의 진술을 살펴보자.

명석하고 곧으며 박학하시어 공자님이 말씀하시던 이로운 친구라 할 만한 분. 규구를 두르시고 먹줄을 당기시며 지란을 차시고 명월을 복용하시네. 그리하여 세상 사람에게 나아가나 세상은 굳게 막아서며 써주지 않았네. 비록 답해주지 않는다한들 무에 잃을 게 있으랴, 초월하여 바야흐로 일으켜 자득했네. 내 그대의 진퇴를 관찰해 본 바로써 스스로 점쳐보건대 나아가고 그침으로써 청탁에 모범을 보이리라 했네. 그대가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혼탁한 세상에서 내 무엇을 모범으로 삼으리오?²⁵⁾

희령 7년(1074) 5월 소식이 항주통판에서 밀주지주로 옮겨갈 때 상주를 지나가다 전공보의 아들인 세옹을 만났습니다. 이때 전공보는 이미 죽었고 세옹이 소식에게 그 부친을 위해 애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식 글의 의미 중에 풍자의 내용이 없는 것은 제외하고 말해보면, “그리하여 세상 사람에게 나아가나 세상은 굳게 막아서며 써주지 않았네.”라 했습니다. 이 말은 전공보의 사람됨이 방정하여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전공보가 일찍이 왕도 추밀사두의 일에 얽힌 것 때문에 폄적되고서 조정에서조차 크게 중용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죄가 없는 전공보를 좌천시키고도 조정이 공보를 등용하지 않았음을 풍자한 것입니다. 또 “그대가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아 세상이 혼탁하니 내 무엇을 모범으로 삼으리오?”라 했는데 이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굽고 바른 것을 묻지도 않아 소식이 모범으로 삼을 바가 없다고 풍자한 것입니다.²⁶⁾

25) “亮直多聞兮，古之益友。帶規矩而蹈繩墨兮，佩芝蘭而服明月。載而之世之人兮，世捍堅而不答。雖不答其何喪兮，超方揚而自得。吾將觀子之進退以自卜兮，相行止以效清濁。子奄忽而不返兮，世混混吾焉則?”

소식의 진술을 참고했을 때 <錢君倚哀詞>는 조정에서 올바른 사람들은 좌천시키고 신진인사들은 중용해 정치를 어지럽히는 등,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신법과의 실책을 논한 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외에도 黃庭堅(1045~1105)이 친교를 청하며 보낸 편지에 쓴 <황노직의 편지에 답하여(答黃魯直書)>라는 답서가 있다.

문장을 보고 그로써 그 사람됨을 짐작해보면 반드시 외물을 가벼이 여기고 스스로를 중시하는 이라서 지금 군자들 중에 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제남에서 이공택에게 들렀더니 그대의 시문이 매우 많아 당신의 사람됨에 대해 더 상세히 알게 되었나니 뜻이 초일하고 속세를 떠나 만물 위에 홀로 서서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는 풍도로 조물주와 노니나니 지금 시대의 군자가 등용할 수 없는 이일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방탕하고 모든 걸 내려놓았고 세상과 소원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벗으로 얻을 수 있는 이가 아니었습니다.²⁷⁾

소식은 이 문장에서 말한 ‘지금 시대의 군자(今之君子)’가 ‘근래에 조정에 등용된 인물(近日朝廷進用之人)’이며 지금 조정에서 관직에 있는 인물들이 황정견처럼 뛰어난 인물을 수용하고 등용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²⁸⁾

요컨대 소식은 과거제도 개혁과 인재 등용의 실책으로 인해 조정이 보

26) “熙寧七年五月，軾自杭州通判，移知密州，道經常州，見錢公輔子世雄。是時公輔已身亡，世雄要軾作公輔哀辭。軾之意，除無譏諷外云，‘載而之世之人兮，世悍堅而莫容。’此言錢公輔爲人方正，世人不能容，爲公輔曾繳王疇樞密詞頭，因此謫官，後來朝廷亦不甚進用，意以譏諷責降公輔非罪，及朝廷不能進用公輔也。又云，‘子奄忽而不返兮，世混混吾焉則。’意以譏諷今時之人正邪混殺，不分曲直，吾無所取則也。” 정세진, 앞의 논문, 248-249쪽.

27) “然觀其文以求其爲人，必輕外物而自重者，今之君子莫能用也。其後過李公擇於濟南，則見足下之詩文愈多，而得其爲人益詳，意其超逸絕塵，獨立萬物之表，馭風騎氣，以與造物者遊，非獨今世之君子所不能用，雖如軾之放浪自棄，與世闊疎者，亦莫得而友也。”

28) 정세진, 앞의 논문, 234쪽.

잘 것 없는 인물로 채워지는 것과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정치사회적 풍조가 쇠퇴하는 것을 개탄하고 문장을 통해 이를 풍자했던 것이다.

3) 신법과 신진관료들에 대한 비판

소식은 당시 조정의 인재 등용 정책에 잘못이 있고 그를 통해 새롭게 등용된 인물들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능력이 없이 관직만 차지하고서 부당한 일들만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희령 3년(1070)에 사마광이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며 보낸 장문의 편지에서 신법에는 “원래 있던 관리의 직권을 침범하고[侵官]”, “번거로운 일만 만들어내며[生事]”, “이익만을 취하고자 하고[征利]”, “남의 의견을 물리치는[拒諫]”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왕안석이 희령 9년(1076)에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조정의 인재 등용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와 관련해 <우천기(雩泉記)>와 소식의 진술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아아 우천이여, 산을 적시는 물줄기여. 물이 귀 기울여 들어본다면 우리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 들리겠지. 내 <운한>²⁹⁾을 노래하노라, 이 샘의 곁에서. 누가 그것을 주관하여 흘러 넘쳐 그 절도에 맞게 하는가. 당당히 자리에 있으면서 불려도 듣지 않네.³⁰⁾

풍자의 의미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말해보면 “당당히 자리에 있으면서 불려도 듣지 않네.”라 하여 이 당시 경동 지방에는 해마다 누리와 가뭄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 마을 백성들은 가뭄을 하소연하지만 관리들은 상소문을 접하고도 법에 따라 제해를 검수하지 않는 일이 많아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위아래에 자자하다는 상황을 꼬집어 당시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기문에서 탄식하는 시를 지었습시다.³¹⁾

29) 《詩經·大雅·雲漢》: 가뭄으로 고통 받으며 비를 구하는 내용이다.

30) “吁嗟雩泉，維山之滋，維水作聰，我民所噫，我歌<雲漢>，于泉之側，誰其尸之，涌溢赴節，堂堂在位，有號不聞。”

<우천기> 중에서 ‘당당히 자리에 있으면서 불려도 듣지 않는’ 것이 위정자인지 비를 주관하는 신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어사대옥에서 소식은 이것이 바로 조정 관료들을 가리킨다고 진술했다. 이는 오대시안 당시 가장 먼저 소식을 탄핵했던 何正臣이 올린 筍子の “항간의 사람들은 홍수와 가뭄의 재난이나 도적의 변고가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소식이 기필코 그 잘못이 신법에 있다는 말을 떠들어 대면서 기뻐서 안색을 바꾸고 다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염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道路之人則又以爲一有水旱之災, 盜賊之變, 輒必倡言, 歸咎新法, 喜動顏色, 惟恐不甚)”라는 내용과 상통한다.

정치 경험과 능력이 없이 관직에 오른 인물에 대한 소식의 날카로운 비판은 <보묵당기(寶墨堂記)>³²⁾에 가장 잘 드러난다.

나는 촉지방 사람인데, 촉 지방 속담에 “글씨를 배우는 자는 종이를 낭비하고 의술을 배우는 자는 사람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록 하찮은 말 같지만 그 비유는 매우 크다. 세상에 공명을 좋아하는 이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아직 시험해보지도 않고 정치관에 몰려나오나니 그들이 사람을 낭비하는 것이 의사에게 비기는 정도이겠는가?³³⁾

소식은 능력과 경험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글씨와 의술을 배우는 이에게 빗대어 경고하고 있다. 정치를 하는 이가 잘못된 정치를 펼치면 그 피해는 의사가 몇 사람을 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다. 소식의 옥중 진술은 더욱 구체적이다.

31) “除無譏諷外云, ‘堂堂在位, 有號不聞.’ 以譏諷是時京東連年蝗旱訴聞, 隣郡百姓訴旱, 官吏多不接狀依法檢收災傷, 致令怨歎之聲, 盈於上下. 當時之人, 耳如不聽, 故記有嗟呼之詩也.” 정세진, 앞의 논문, 264-265쪽.

32) 《蘇軾文集》 권11에는 ‘墨寶堂’으로, 《동과오대시안》에는 ‘보묵당’으로 되어 있다.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中華書局, 1992, 357쪽.

33) “余蜀人也, 蜀之諺曰, ‘學書者紙費, 學醫者人費.’ 此言雖小, 可以喻大. 世有好功名者, 以其未試之學, 而驟出之於政, 其費人豈特醫者之比乎?”

의술을 배우는 자는 당연히 의서를 공부해서 병의 근원에 대해 궁구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렬한 의사와 장님, 기녀가 약석을 투약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에 등용된 사람들이 일에 단련되지도 않았음에도 뽐혀서 백성들에게 정치를 행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성냄에 항상성이 없어 그들이 사람을 해침이 배우지 않은 용렬한 의사보다 더 심하다고 풍자하였습니다.³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식은 신법 시행 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공사전 삭감, 과거제도와 인재 등용, 신진 관료들의 미숙함을 제재로 풍자해냈다. 그러나 오대시안에 연루된 소식의 일부 문장은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사건에 연루된 시처럼 다양한 소재나 제재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Ⅲ. 오대시안에 연루된 시와 문장의 표현의 일치성 - 君子와 小人, 新과 舊의 대립 구조

소식은 <황노직의 ‘고풍’ 시에 차운하여(次韻黃魯直見贈古風二首)> 중 첫 번째 시에서 젊은 황정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풀어냈다.

嘉穀臥風雨,	곡식은 비바람에 쓰러져 눕고
稂莠登我場.	강아지풀이 우리 집 타작마당에 올라와
陳前漫方丈,	내 눈앞의 드넓은 곳간에 넘쳐나매
玉食慘無光.	진수성찬이 참담하게 빛을 잃었네.
大哉天宇間,	천지는 참 크도다
美惡更臭香.	미식과 악식이 다 있고 또 방향과 악취가 다 있으니!

34) “軾以謂學醫者當知醫書，以窮疾之本原，若今庸醫瞽技，投藥石以害人性命，意以譏諷朝廷進用之人多不練事，驟施民政，喜怒不常，其害人甚於庸醫之未習。” 정세진, 위의 논문, 258-259쪽.

(.....)

顧我如苦李, 돌아보니 나는 마치 시름한 돌 자두가
 全生依路傍. 길가에서 목숨을 보전한 것과 같네.
 紛紛不足愠, 소인배가 분분하다 화를 낼 것 없나니
 悄悄徒自傷. 진전궁궁 근심하면 자신을 해칠 뿐이라네.³⁵⁾

이 시에서 《시경》의 구절을 이용해 ‘紛紛不足愠’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小人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강아지풀, 모기떼는 모두 이 소인배와 이미지를 같이한다. 소식은 소인배의 이미지와 君子인 황정건의 이미지를 대비시켜 시대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충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식은 황정건을 위로하면서 왜 군자와 소인의 대립 구도를 이용한 것일까. 이는 당시 붕당의 상황과 관계되어 있다. 북송 정치의 핵심은 붕당에 있었는데, 사대부들은 붕당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당만이 ‘군자의 당’이고 상대 당은 ‘소인배들의 당’이라는 ‘군자소인론’을 근거로 논쟁을 벌였다.³⁶⁾ 이 같은 맥락에서 소식은 시에서 신법파 관료들을 소인배,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을 군자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의 대립적 구도는 ‘新’과 ‘舊’의 대립구도로도 적용되기도 했다. 이른바 신법파는 소인, 구법파는 군자라는 이분법적 표현이었다.

오대시에 연루된 문장에서도 ‘군자’라는 측면을 강조한 이러한 서술이 종종 나타난다. 소식의 절친한 벗이었던 王鞏을 위해 써준 <삼괴당명(三槐堂銘并叙)> 일부를 살펴보자.

하늘이 장차 왕씨 집안을 다시 흥하게 하시려는지 그 자손 중에 현명한 자가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로 보건대 왕씨 집안의 복은 아직 그치지 아니하였다. 의민공의 아들인 왕공과 나는 교유하는데 그는 덕을 좋

35) 류종목,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2》,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813- 817쪽.

36) 북송의 붕당 간 군자소인의 논쟁에 대해서는 신채식의 《宋代政治經濟史研究》 한국학술정보, 2008을 참고할 수 있다.

아하고 문에 능하여 그 집안의 대를 잇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이를 기록하여 명문을 써서 말한다 : 아아, 아름답구나! 위공의 업적이 왜나무와 함께 싹터 나무를 심는 부지런함으로 반드시 대를 이어 성공할 것이었나니 진중 대에 재상을 지내며 사방이 태평하도록 하셨는데 돌아와 그 집안을 보니 왜나무 그늘이 뜰을 채웠네. 우리 같은 소인배들은 아침에 저녁을 도모하지 않는다. 때를 보아 이익이나 좇으니 그 덕을 걱정할 겨를이나 있으랴. 요행이나 바라며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니 군자가 없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랴. 왕성 동쪽에 진공의 저택이 있는데 세 그루 울창한 왜나무는 그 덕의 증거이라.³⁷⁾

소식은 다소 상투적인 투로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왕공의 집안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왕공의 집안이 대대로 명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역시 군자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소식이 옥중에서 “이는 태조, 태종대에 만약 이처럼 덕 있는 군자가 없다면 어찌 능히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말로 왕단 부자를 말한 것입니다.(言朝宗朝若無此有德君子, 安能建國乎, 以言王旦父子也)”라고 설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이 문장은 갑작스럽게 권력을 잡은 신진 관료들과 대대로 덕망을 이어온 군자의 집안과 비교했다는 혐의가 다분한 것이다. 소식은 <왕원지의 화상에 찬하다(王元之畫像贊并叙)>에서도 군자와 소인에 대한 비슷한 논리를 이어나갔다.

《춘추좌전》에 “군자가 없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 했다. 나는 예전에 이 말을 세 번 씩 되풀이하면서 눈물 흘리며 크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 돌아가신 한림학사 왕원지 공은 그 힘 있는 문장과 바른 도로써 당시에 홀로 우뚝 서서 위의 여섯 군자와 짝지을 만하셨습니다. 마침 이때에 조정이 맑고도 밝아서 크게 간특한 자들이 없었으나 공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가을 서리와 여름날 햇살처럼

37) “天將復興王氏也歟? 何其子孫之多賢也. …… 由此觀之, 王氏之福, 蓋未艾也. 懿敏公之子輩與吾遊, 好德而文, 以世其家. 吾是以錄之銘曰: 嗚呼休哉. 魏公之業, 與槐俱萌. 封植之勤, 必世乃成. 既相眞宗, 四方砥平. 歸視其家, 槐陰滿庭. 吾儕小人, 朝不謀夕. 相時射利, 皇郵厥德. 庶幾僥倖, 不種而獲. 不有君子, 其何能國. 王城之東, 晉公所廬. 鬱鬱三槐, 惟德之符.”

뜻뜻하게 회롱을 불가하시고 세 번 사양하다 돌아가셨다. 만약 불행히 사악한 무리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처하셨다면 공의 행위는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하여 천박하고도 편협한 무리들로 하여금 심장이 쪼개지고 간담이 찢어지게 했을 것이니 비단 이뿐이겠는가? 그 후에 내가 서주에서 일을 하고 공의 증손인 왕분이 연주에서 일하게 됨에 공의 묘비명을 내게 보여주며 찬문을 지어주면 그 가문의 전기에 부가하겠노라 했다. 오로지 옛날 성현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을 근심했다. 공은 태종 황제를 만나 그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황제는 공을 등용하고자 했으나 공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세 번 사양하고 산에 처하여 죽을 때까지 유감을 삼지 않아서 함평 연간 이래 홀로 명신이 되시고 일시에 굴복시키고 만세의 믿음을 얻으셨다. 많고 많은 비루한 사람들 또한 공의 화상 앞에 절하는데 어찌 그들을 점찍으랴만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난다.³⁸⁾

소식은 이 글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왕우칭과 같은 올곧은 ‘군자’임을 피력했고 옥중 진술에서도 “‘하고 많은 비루한 사람들 또한 공의 화상 앞에 절하는데 어찌 그들을 점찍으랴만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난다.’라고 한 것도 지금 등용된 사람들을 일컬어 비루한 사람들이라 공의 화상 앞에 절을 할 때면 마음이 부끄러워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를 것이라고 풍자한 것입니다.(又云‘紛紛鄙夫, 亦拜公像, 何以占之, 有泚其額.’ 亦以譏諷今時進用之人謂之鄙夫, 言拜公之像, 心愧而汗額也)”라고 했다. 결국 왕우칭은 신진 인사들과 대비된 ‘군자’이자 ‘구’의 인물인 것이다. 왕공에게 지어준 <왕중의 진찬(王仲儀眞贊并叙)>도 살펴보자.

38) “《傳》曰: ‘不有君子, 其能國乎?’ 余嘗三復斯言, 未嘗不流涕太息也. 故翰林王公元之, 以雄文直道, 獨立當世, 足以追配此六君子者. 方是時, 朝廷清明, 無大姦慝. 然公猶不容於中, 耿然如秋霜夏日, 不可狎玩, 至於三黜以死. 使其不幸而處於衆邪之間, 安危之際, 則公之所爲, 必將驚世絕俗, 使斗筭穿窬之流, 心破膽裂, 豈特如此而已乎? 始余過蘇州虎丘寺, 見公之畫像, 想其遺風餘烈, 願爲執鞭而不可得. 其後爲徐州而公之曾孫汾爲兗州, 以公墓碑示余, 乃追爲之贊, 以附其家傳云. 維昔聖賢, 患莫已知. 公遇太宗, 允也其時. 帝欲用公, 公不少貶. 三黜窮山, 之死靡憾. 咸平以來, 獨爲名臣. 一時之屈, 萬世之信. 紛紛鄙夫, 亦拜公像. 何以占之, 有泚其額.”

《맹자》에 이르길 “소위 오래된 나라라는 것은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신하를 한 집안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 했다. …… 저 소위 대대로 신하한 집안이란 것이 어찌 비단 대대로 녹을 받은 사람만이며 큰 집안이란 것이 어찌 비단 부유한 집안만 가리키는 것이라! …… 평소에 무사안일하게 지내며 공과 이익을 따지고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 받으려는 이들로는 진실로 신진 인사들 만한 이들이 없다. 위급할 때에 이르러서 큰 계책을 결정할 때 대중을 편안케 하고 부르면 오게 할 수 있고 휘두르면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대로 신하한 집안과 큰 집안만이 그리할 수 있다.³⁹⁾

이 문장은 다분히 노골적으로 신진인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소식은 나라를 이끌어 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대대로 역량을 축적한 큰 집안 [巨室]이라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인사고과에만 신경 쓰는 안일하고 비루한 신진인사들과 대비시켰다. 소식의 문에서 왕공의 집안이 대대로 군자가 나는 집안으로서 ‘구’를 뜻한다면 신진인사들은 비루한 소인배들로서 ‘신’을 뜻하는 것이다.

IV. 나가며

본고에서는 시가 중심이 된 문자옥이라는 이유로 오대시안에 연루된 시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그간의 연구 경향을 벗어나 연루된 문장을 모두 살펴보았다. 《동파오대시안》에 언급된 18편의 문장과 이에 대한 소식의 옥중 진술을 통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구절과 풍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은 18편이다.

39) “孟子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 夫所謂世臣者, 豈特世祿之人, 而巨室者, 豈特侈富之家也哉! …… 平居無事, 商功利, 課殿最, 誠不如新進之士. 至於緩急之際, 決大策, 安大眾, 呼之則來, 揮之則散者, 惟世臣巨室爲能.”

둘째,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에 대한 소식의 진술은 시에 대한 진술에 비해 상당히 간략하다.

셋째, 조정을 풍자했다고 문제가 된 문장에 대해 모든 경우에 혐의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넷째,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 중에는 풍자의 여부를 떠나 문장을 주고 받은 인물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사용된 것도 있다.

다섯째, 오대시안에 연루된 문장에서 신법과 관련된 소재는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공사전 삭감에 대한 풍자, 과거제도 개혁과 인재 등용에 대한 불만, 신진 관료의 실책에 대한 비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섯째, 연루된 문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연루된 시와 마찬가지로 군자와 소인, 신과 구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18편의 문장에 대한 분석과 시와의 비교를 통해 오대시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오대시안이라는 문자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시각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오대시안이 중국 문자옥의 역사와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朋九萬(宋) 撰, 李調元(清) 編, 《東坡烏臺詩案》, 綿州(清): 萬卷樓, 道光 5(1825).
- 胡子, 《苕溪漁隱叢話》, 中華書局, 1976.
- 周紫芝 錄, 《叢書集成初編: 詩讞》, 中華書局, 1985.
- 張鑑(清) 著, 鬱士禎(清) 校, 《眉山詩案廣證》, 清: 江蘇書局, 光緒 10 (1884).

- 蔡正孫 撰, 常振國, 降雲 點校, 《詩林廣記》, 北京: 中華書局, 1982.
-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2004.
- 孔平仲, 《孔氏談苑》, 《叢書集成初編》, 北京: 中華書局, 1985.
- 蘇軾 撰, 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99.
- 蘇軾 著; 馮應榴 輯注, 《蘇軾詩集合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2.
- 孔凡禮, 《蘇軾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8.
- 江惜美, <烏臺詩案研究>, 東吳大學 碩士論文, 1987.
- 溫澤遠, <烏臺詩案研究>, 復旦大學 博士論文, 1999.
- 周克勤, <烏臺詩案研究>, 西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2.
- 王忠燦, <論官員犯罪和北宋司法審判的特點—以烏臺詩案爲切入點>, 河南大學 碩士論文, 2008.
- 류종목,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2》,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신서원, 2005.
- 신채식, 《宋代政治經濟史研究》, 한국학술정보, 2008.
- 정세진, 《烏臺詩案의 사회문화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Abstract>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refers to the case which the censorate officials impeached Su Shi for having written satirical literature about the government and had him locked up in ‘The Crow Terrace’ for interrogation. This paper treats the proses related to this case. Firstly, Su Sui’s statements on the related prose are more brief than those on poems. Secondly, some of the prose were used to prove the social connections with Su Shi. Lastly, some of Su Shi’s prose distinctively

criticized the New Policies.

Key Words : 蘇軾(Su Shi), 烏臺詩案(The Crow Terrace Poetry Case), 新舊黨爭(The opposition between Reform party and Conservative party), 新法(New Policies), 文字獄(Literary Persecution).

